

조선 후기 사기장인 연구*

방 병 선**

- I. 머리말
- II. 제도 정비(인조-경종: 1623-1724)
- III. 상품자기 생산(영조-정조: 1724-1800)
- IV. 분원 민영화(순조-고종: 1800-1884)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사대부의 미감과 미의식을 잘 드러낸 조선시대 예술품으로 백자를 꼽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다. 文氣 충만한 문양과 단아한 기형에서 우러나오는 당당한 기품에서 조선 선비들이 지향했던 소박한 아름다움이 그대로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선백자는 거의 조선시대 내내 관영수공업 체제 하에서 제작되었다. 1460년대 사용원에 왕실용 그릇을 전문 생산하는 분원이 설치되어 1884년까지 그릇의 생산은 왕실이

* 본 논문은 2003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교수.

직접 관장하였다. 이는 백자가 그만큼 조선 왕실에서 귀히 여기는 것 중의 하나였음을 알게 해준다.

이들 관요 자기 생산의 주역은 전국에서 차출된 380명의 사기장들이었다. 분원에 차출된 이들이 왕실용 그릇을 만들었던 반면 차출되지 않은 외방 장인들은 각자 고향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장포를 바치는 의무를 다하였다. 이들 모두 대대로 장인의 임무만을 수행해야만 했으므로 다른 계층으로의 전이가 불가능하였다.

한편 분원에 소집된 장인들은 자신들의 제작 능력과 특성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었다. 이들의 우두머리 격인 邊首는 제작 총책임자 겸 진상의 총책을 맡고 있었는데 장인 중에서 뽑히기도 하거나 조선 말기로 가면 상인들이 변수를 맡기도 하였다. 장인과 변수 등은 주변 환경과 제도 변화에 적응하며 왕실용뿐 아니라 18세기 이후에는 상품용 그릇도 제작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조선의 사기 장인들에 대한 기록은 19세기 말 몇몇 분원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름조차 알 길이 없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생산 활동에 있어서 애로점은 무엇이었는지, 단지 상상에 맡길 뿐이다. 결국 조선의 장인들은 무명으로 살면서 소담한 꿈을 하얀 백자 안에 담아놓고 갔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의 장인들 중 비교적 문헌 기록이 남아 있는 사용원 분원 사기장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분원제도의 변화와 시대 상황에 따라 이들 장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각종 사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와 남아 있는 유물의 양식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연구 범위는 조선 후기인 17세기부터 분원이 민영화되는 1884년까지로 하였다.

II. 제도 정비(인조-경종: 1623-1724)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많은 가마터가 파괴되었고 국가재정의 고갈로 분원경영이 순탄치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안료의 수입이 곤란하여 靑畵白磁의 생산은 중단되었다.

그런 와중에 대동법과 균역법의 실시로 장인의 신분제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숙종 연간 들어 장인의 모집은 賦役制에서 사실상의 雇用制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관요를 십 년에 한 번씩 이전하면서 소용되는 막대한 物力을 절감하기 위해 숙종 연간 들어 분원을 고정시

키고 원료와 연료를 운반하지는 분원고정론이 대두되었다.

1. 시련 극복(인조-현종: 1623-1674)

17세기 들어 잇따른 전쟁의 후유증으로 조선의 전반적인 수공업 형태는 대부분 관장제가 무너진 형편이었지만 그릇을 만드는 분원과 종이를 만드는 造紙署는 관영수공업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분원의 경우 당시 왕실이나 대신들이 御器燔造라는 특별한 임무를 중요시했고 분원자기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私益을 안겨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원장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他役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했으며 대대로 그릇 굽는 일을 이어가게 되었다.

분원사기장은 『經國大典』에 명시되었듯이 380명이 정원이다.¹ 이들 장인들은 분원에 들어와 일정 기간 작업을 해야 하는 분원사기장과 入役하지 않고 匠布를 바치는 외방사기장으로 구분되어 6개월씩 3교대로 입역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방사기장들의 입역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진상사기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다.²

원래 사용원의 사기장 정수는 분원사기장 380명 이외에 戶와 奉足, 즉 價布를 바치는 외방사기장을 합쳐 총 1140명이었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들어 821명에 불과하였다.³ 특히 장포를 바치는 외방장인들의 이탈로 재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입역장인의 수가 그만큼 줄어 생산 활동의 위축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인조 3년(1625)에⁴ 이어 인조 16년(1638)년에는 大禮에 사용되는 청화백자 畫龍樽을, 停燔으로 장인들이 도망가 구하지 못하자, 假畫로 대신할 정도였다.⁵ 또한 인조 26년(1648)에는 운송 도중에 귀중한 龍樽뿐 아니라 전체 상납 그릇의 1/4 가량이나 파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⁶ 인조 10년(1632)에는 경상도 지방의 경우 장인의

1 『經國大典』에서 高宗代의 『大典會通』까지 沙器匠의 정원은 380명이었다.

2 『承政院日記』 7冊, 仁祖 3年 6月 17日條.

3 『承政院日記』 7冊, 仁祖 3年 7月 2日條.

4 『承政院日記』 67冊, 仁祖 3年 2月 14日條.

5 『承政院日記』 67冊, 仁祖 16年 10月 21日條.

6 『承政院日記』 101冊, 仁祖 26年 閏3月 15日條.

반밖에 입역하지 않아 외방장인들이 분원의 입역을 엄격히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⁷

인조 11년(1633)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장인들에 대한 대우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병조로 이송된 300명분의 장포를 환속시키는데 성공하였다.⁸ 원래 외방장인의 布價는 다음 해 사용할 것을 당해 11월에 거두어들이지만 원활한 징수가 어려움에 따라 입역한 분원장인들은 모진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원에 소속된 사기장은 국가에서 필요한 자기 이외는 제작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체는 사대부나 사옹원 고위 관리들의 부탁으로 사사로이 번조할 기회가 심심찮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도 정비(숙종-경종: 1674-1724)

숙종 연간 들어 대동법과 균역제의 실시로 장인들의 부역제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분원 장인들도 순번 입역제가 아닌 전속제로 고용 형태가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좀더 많은 재원의 확보와 원료 및 연료의 원활한 조달, 과학적인 시험과 운반체계를 통한 분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분원이동의 근본원인인 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분원고정론이 대두되면서 점차 시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들 수 있다. 당시 조선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으로써 양란의 피해함에서 벗어나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⁹ 문화적으로도 내부적인 자신감과 더불어 차츰 명·청 교체의 혼란기를 벗어난 중국과 문화적 통교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⁰

⁷ 『承政院日記』 36冊, 仁祖 10年 4月 10日條.

⁸ 『承政院日記』 40冊, 仁祖 11年 6月 11日條.

⁹ 柳承宙, 「朝鮮後期 對淸貿易의 展開過程-17·18世紀 赴燕譯官의 貿易活動을 中心으로」, 『韓國史論文選集(朝鮮後期篇)』(일조각, 1976), pp.247-311; 李泰鎭, 「國際貿易의 成行」, 『韓國史市民講座』 제9집(일조각, 1991), pp.63-89.

¹⁰ 姜寬植, 「朝鮮後期 美術의 思想的 基盤」, 『韓國思想史大系』 5 近世後期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pp.574-575.

1) 분원 전속제

숙종 연간 들어 이전까지 셋으로 나누어 교대로 분원에 입역하던 장인들은 이제는 아예 분원 주위에 마을을 형성하는 사실상 분원에 전속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대개 이러한 전속장인이 등장하는 시기는 1700년대 전후로 여겨진다.¹¹

분원장인의 전속제는 사용원 입장에서 장인들의 안정적인 확보, 고정적인 기술 습득과 유지를 위해 전속장인을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건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관요는 수준 높은 전속장인을 거느리게 된 반면 出役하지 않는 지방장인들은 장포만을 바침으로써 의무를 다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장인들은 각처에 가마를 열어 민간 수요의 자기를 생산하였다. 이들은 沙器店村을 형성하여 이 시기 철화백자 가마가 전국 각지에 걸쳐 분포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처럼 활발한 지방가마의 활동에는 도자의 유통확대와 제작인구의 확산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품경제의 발전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방장인들은 특수한 경우 조정의 명에 따라 公的인 그릇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이 조선에 주문한 다완류의 생산은 경상도 일대의 외방사기장들이 도맡아 하였다.¹²

원래 일본이 요청한 다완 번조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번조를 위해 흙과 연료, 장인 등의 조달로 인한 민폐를 감수해야 했으므로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구청 과정에서도 명분과 격식을 중히 여겨 이에 합당치 않으면 단호히 거절하였다.¹³ 이는 일본에 대한 당시 지배층의 생각이 華夷觀에 입각한 문화적 우위를 바탕으로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¹⁴ 이러한 것은 영조와 정조를 거치면서 북학파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에도 배움의 대상으로 여긴 것과는 사뭇 다른 일본관을 느끼게 한다.

2) 장인의 생활

이제 분원 장인들의 생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들은 먼저 거주 지역의 관리들로

¹¹ 『承政院日記』 370冊, 肅宗 23年 閏3月 2日條.

¹² 방병선,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미술사학연구』 232(한국미술사학회, 2001), pp.131-156.

¹³ 『肅宗實錄』 卷38, 29年 9月 7日 庚戌條.

¹⁴ 河宇鳳, 『朝鮮後期實學者의 日本觀研究』(일지사, 1989), pp.49-53.

부터 분원 입역을 명 받은 후 분원에 상경하여 각자의 기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당시의 작업체제는 현재로선 알 길이 없지만 19세기 말 기록인 『分廚院報騰』에 의하면 분업과 협업체제로 이루어져 생산성에 있어 상당한 효율제고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¹⁵ 監官 1명과 20명의 員役 아래 총 552명의 인원에 각기 27개의 직급체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듯 방대한 체계가 언제부터 뿌리내렸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마도 이전에는 인원도 적고 이처럼 분업이 세분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분원 장인들에게는 點心米와 급료가 지급되었다. 점심미는 고종 4년(1867)에 간행된 『六典條例』에 의하면 근처 읍에서 가져와서 장인에게 나누어주고 윤달이 있으면 더 주는데 총 48석이었다.¹⁶ 급료로는 장인 1인당 3명의 保人이 바치는 보 3필이었다. 이들 保는 외거장인들에게서 각 지방의 수령이 거둬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매번 이 숫자를 채우지는 못하였다. 장포가 잘 견어지지 않거나 중간 사취 등의 경우도 있어서 숙종 중반 이후부터는 더욱 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¹⁷

숙종 연간 후반에는 계속된 가뭄과 사변의 이익감소 등으로 장인들이 분원을 이탈하여 도망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외방장인들도 부담이 덜한 타역으로의 이전을 꾀하거나 아예 도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다른 시에서는 가포를 적절히 자기 쪽으로 이속시킨 경우도 있어 이래저래 법정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원은 꾸준히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¹⁸

작업기간은 당해 음력 2월에서 10월까지였다. 이들은 따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외방장포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생계를 꾸려 가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숙종 연간 계속된 가뭄과 질병 등으로 숙종 23년(1697)의 경우 분원장인의 정원인 380명을 채우지 못하였고 고 계속되는 흉년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함 속에서 살아야 했다.¹⁹

당시 분원 장인들의 상황을 잘 표현한 것으로 澹軒 李夏坤(1677-1724)의 시가 있다. 그의 문집인 『頭陀草』에 실려 있는 것으로 담헌이 숙종 35년(1709)에 묘지 사변을 위해 분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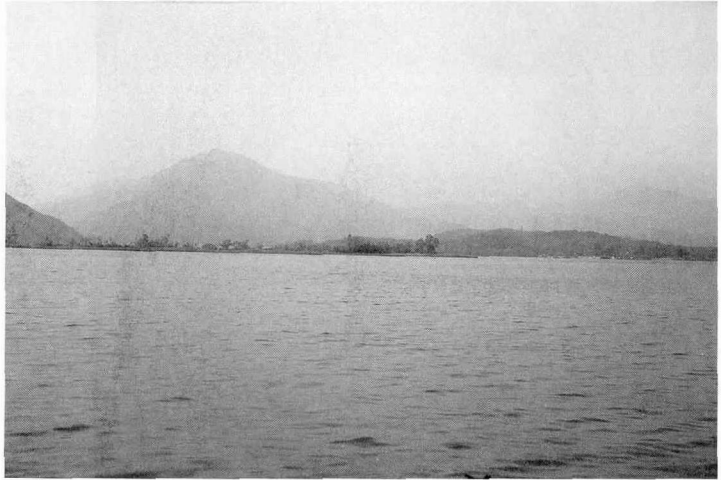
15 淺川巧, 『朝鮮陶磁名考』(朝鮮工藝刊行會, 1931), pp.139-142; 방병선, 「고종 연간의 분원 민영화 과정」, 『역사와 현실』 33호(한국역사연구회, 1999), pp.183-216.

16 『六典條例』 卷二, 司饗院 分院.

17 『備邊司騰錄』 43冊, 肅宗 15年 3月 25日條.

18 『承政院日記』 355冊, 肅宗 15年 5月 16日條.

19 『承政院日記』 370冊, 肅宗 23年 閏3月 6日條.



도1 분원 전경

머물면서 제작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지은 것이다.

앵자산(鶯子山) 북쪽 우천(牛川) 도1 동쪽에
남한산성이 눈 안에 있네.
강구름은 밤마다 계속해서 비를 만들고
산골 나무에는 열흘 계속하여 바람이 길게 부네.

도공들은 산모퉁이에 사는데
오랜 부역이 괴롭다네.
스스로 말하길 지난해 영남으로 가서
진주 백토를 배에 실어 왔다네.

선천토(宣川土) 색상은 눈(雪)과 같아서
어기(御器) 번성(幡成)에는 제일이라
감사가 글을 올려 백성의 노역은 덜었지만
진상품은 해마다 퇴물(退物)이 많네.

수비(水飛)하여 만든 정교한 흙은 솜보다 부드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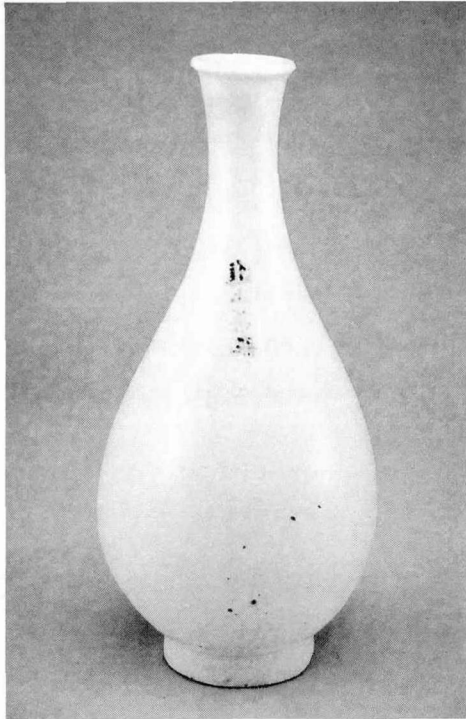
도 2 청화백자팔각호,
18세기 전반, 높이 23cm,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발로 물레 돌리니 저절로 도네.
잠깐사이 천여 개를 빚어내니
사발·접시·병·항아리 하나 같이 둥글다네.

진상할 그릇 종류는 삼십 가지요
사용된 본원에 선물로 바칠 양은 사백 바리나 되네.
깨끗하고 거친 색과 모양 논하지 말게
바로 무전(無錢)이 죄이네.

회청(回靑)으로 칠한 한 글자를 은처럼 아껴
갖가지 모양 그려내어도 색깔이 고르네.
지난 해 대전에 용준(龍樽)을 바치니
내수사(內需司)에서 면포를 공인에게 상으로 주었다네.

칠십 노인 성은 박씨라
그 안에서 숨씨 좋은 장인으로 불린다네.
두꺼비 연적은 가장 기이한 물품이고
팔각 중국풍 항아리 도2 정말 좋은 모양이네.²⁰



도3 철화백자 “진상다병”명 병, 1720년대, 높이 39.5cm, 해강도자미술관

위의 시에서처럼 당시 분원 장인들은 거칠고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신기의 솜씨를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원 장인들의 공식적인 연간 생산량은 『六典條例』에 의하면 총 13,720개였고 봄, 가을인 6월과 10월에 水運으로 진상하였다.²¹ 그러나 이들 진상자기 이외에도 왕실의 가례나 연례행사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기를 제작해야 했다.²² 이는 장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이에 따른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않았다. 게다가 숙종 30년 외거 장인들의 포가도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필에서 1필이 감해져 분원장인들의 立價지급이 더욱 원활치 않았다.²³

따라서 사용원은 匠保의 확보와 未收匠布의 방지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²⁴ 숙종 말기 다시 기근으로 급료와 쌀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숙종 44년(1718)에

20 李夏坤, 『頭陀草』 冊3, 詩 住分院二十餘日 無聊中效杜子美夔州歌體 雜用俚語 戲成絕句 七首(驪江出版社, 1992, pp.187-189). 위 시는 다음에서 재인용하였다.

崔完秀, 『謙齋 鄭敬 眞景 山水畫』(범우사, 1993), p.100.

鷺子之北牛川東 南漢山城在眼中 江雲能作連宵雨 峽樹長吹十日風。
窯人居在此山隈 長役官門亦苦哉 自道前年踰嶺去 晉州白土在缸來。
宣川土色白如雪 御器播成此第一 監司奏罷蠲民役 進上年年多退物。
水飛精土軟於綿 足撥輪機自斡旋 須臾捏就千餘事 盃碗瓶罌一樣圓。
御供器皿三十種 本院人情四百馱 精粗色樣不須論 直是無錢便罪過。
回青一字惜如銀 種種描成着色均 前歲龍樽供大內 內司綿布賞工人。
七十老翁身姓朴 就中稱爲善手匠 蟾蜍硯滴最奇品 八面唐壺真好樣。

21 『六典條例』 卷二, 司窰院 分院.

22 『承政院日記』 355冊, 肅宗 20年 2月 13日條.

23 『肅宗實錄』 卷40, 30年 12月 甲午條.

24 『備邊司謄錄』 58冊, 肅宗 33年 2月 2日條.

는 진상 별변을 감하고 일시적으로 장인들의 歸農을 허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²⁵ 이와 더불어 분원 시장 내의 火田稅와 家戶米의 반을 장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²⁶ 이와 같은 결정은 서울 本院으로부터 운반에 드는 비용과 수고를 절감하고 중간 사취를 막는 일거양득의 묘책이라 할 수 있으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장인들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중간 관리에 의한 사취방지 또한 중요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영조는 보위에 오르기 전 분원 吏屬들의 사취를 방지하기 위해 철화백자 안료인 石間朱로 “進上茶甌” 도3이라 쓰게 하여 진상시켰다.²⁷ 이는 분원 중간 관리들의 농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게 함과 동시에 영조의 도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편 분원의 변수는 태도 채굴에도 관여하였다. 이들은 각 원료 산지에 郎廳 등과 교대로 파견되어 업무를 감독하였다.²⁸

3) 私燔의 허용

숙종 연간에 접어들어 장인들이 생계를 위해 상품으로 자기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사변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사변이 처음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숙종 23년(1697)이다.²⁹

사변은 주로 匣鉢에 넣어 굽는 갑기와 청화백자가 주류를 이루었다.³⁰ 사변은 분원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장인들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해줄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함과 동시에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일반 사대부들의 고급 자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변은 분원 경영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 점차 증가하였으며 왕실 이외 수요층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사변의 증가는 상품경제와 유통의 발달로 상품자기의 생산이 시대적 대세인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사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원 장인들의 생활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25 『承政院日記』 506冊, 肅宗 44年 1月 17日條.

26 『承政院日記』 509冊, 肅宗 44年 8月 19日條.

27 『承政院日記』 648冊, 英祖 3年 10月 21日條.

28 『承政院日記』 367冊, 肅宗 22年 9月 6日條; 同 371冊, 肅宗 23年 4月 16日條.

29 『承政院日記』 370冊, 肅宗 23年 閏3月 2日條.

30 『承政院日記』 396冊, 肅宗 27年 3月 23日條.

Ⅲ. 상품자기 생산(영조-정조: 1724-1800)

영조 연간 들어 정치, 경제적 안정에다 문예부흥이라는 시대적 대세에 힘입어 수요층의 확대와 문인풍의 양식이 개화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영조와 정조라는 학예군주의 뒷받침이 큰 힘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최고의 색상과 품격을 갖춘 자기가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1. 사기전과 화장의 등장(영조: 1724-1776)

영조기로 넘어가면 분원의 제도와 백자양식에서 새로운 양상들이 선보이게 되었다. 먼저 분원 제도를 보면 연료문제와 분원고정을 동시에 성사시키기 위한 분원강 木物收稅制가 확립되었다. 분원은 금사리에서 30년을 보낸 후, 다시 남한강과 북한강이 조우하는 천혜의 요지인 분원리로 이전하여 조선 말기까지 한 곳에서 제작활동을 하게 되어 분원고정을 이루게 되었다. 분원이동의 많은 부역을 당시 장인들이 맡았던 것을 감안하면 장인들에게도 큰 짐을 더는 것이었다.

양식적으로는 청과의 무역을 통한 回回靑 求得이 용이해지자 자연스럽게 전시대 철화백자도⁴에서 청화백자로 주류가 바뀌었다. 기형은 달항아리풍의 도⁵ 곡선미가 거의 전 기형에 걸쳐 중시되었다. 문인 취향의 산수문이⁶ 소상팔경을 위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또한 각접시와 각병⁷, 각호 등의 새로운 기형도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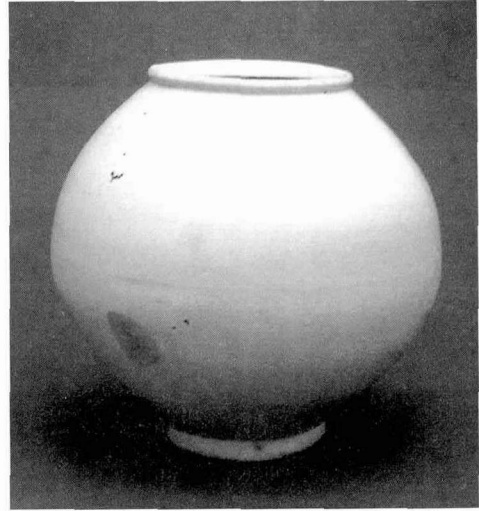
한편 영조는 사용원 도제조로 있던 숙종 후반 1710년대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분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³¹ 영조는 詩書畫에 뛰어난 탓에 산수와 화훼 등의 도자기의 밑그림을 직접 그려 분원에 가서 구워 오라고 명하기도 하였다.³² 임금이 이 정도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니 관영수공업 체제하의 분원자기의 품질은 보다 향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1 『增補 文獻備考』 卷222, 職官考9 司饗院條. 英祖는 16세인 1710년에 사용원 도제조를 맡게 되는데 이는 영조 말년에 편찬된 『御製集慶堂編輯』과 『御製續集慶堂編輯』의 기록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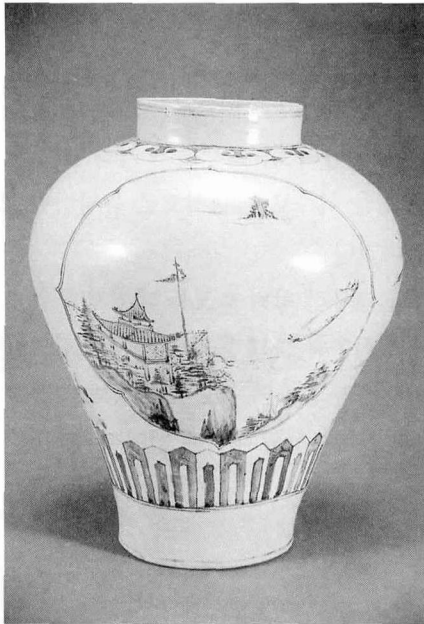
32 金時敏, 『東圃集』 卷七, 雜著 謹題 御書帖子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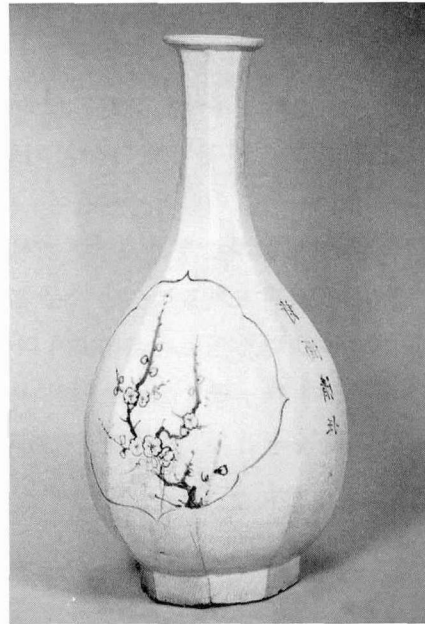
도 4 청화백자매죽문호, 17세기,
높이 41.3cm, 국립중앙박물관



도 5 백자호, 18세기 중반,
높이 27.2cm, 간송미술관



도 6 청화백자산수문호, 18세기 중반,
높이 38.1m, 국립중앙박물관



도 7 청화백자매죽문팔각병, 18세기,
높이 40.6cm, 호암미술관

1) 사기전

숙종 후반 사변이 허용되면서 이제 장인들도 자신들이 제작한 그릇을 판매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개는 장인 개개인이 짊어지고 가서 팔 정도의 소량이었지만 개중에는 고정적인 장소에 가건물을 짓고 사기전을 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영조 30년(1754) 기록을 보면 당시 장인들이 직접 사기전을 열거나 매매행위에 직접 나서는 것은 여러 견제를 받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다.³³ 여기서 사기전을 연다는 것은 假建物을 짓고 물건을 나열하여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소량으로 진상 후 남은 그릇을 짊어지고 가서 파는 것은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영조는 장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춘추 진상 후 한 달씩 판매를 허락하였지만 設塵은 엄금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존 상인들과의 불가피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에 따라 자본 축적과 판매행위가 여의치 않았던 장인들은 결국 상인들의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추후 분원에 대한 상인지배가 가능케 했던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분원은 서서히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³⁴

2) 畫匠

조선시대 사기장 중 그림을 담당한 畫匠은 초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백자의 시문을 전문 화원이 도맡아 하였고 시문에 사용된 청화 안료의 수입과 관리를 화원들이 했기 때문이었다.³⁵ 그러나 18세기 들어 점차 청화 안료의 수입이 용이해지고 사변이 활발해지면서 분원 안에서도 직접 청화로 그림을 그리는 화장이 등장하였다.

영조 30년(1754)에는 화원이 내려가지 않아도 회청자기가 분원에서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³⁶ 이는 분원 내에 시문을 담당하는 화장들이 존재했음을 유추하게 하는 것이다.

화장들은 부수적인 작업의 하나로 그릇에 그림을 그렸던 화원들과 달리 분원에 상주하면서 백자의 그림 시문만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이었다. 이들은 비록 다양한 그림의 기법에 서는 화원들보다 처지겠지만 공예적인 장식문양의 경우 반복된 훈련으로 신속한 문양 시문

33 『承政院日記』 1102冊, 英祖 30年 1月 16日條.

34 『備邊司謄錄』 126冊, 英祖 29年 7月 10日條.

35 『新增東國輿地承覽』 卷6, 京畿道 廣州牧 土產條 “磁器 每歲司饗院官率畫員監造 御用之器”.

36 『承政院日記』 1105冊, 英祖 30年 4月 29日條.

이 가능했던 장점도 지니고 있었다.

분원 내 이러한 화장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청화백자의 수요가 늘어났음을 알게 해준다. 이를 입증하듯 같은 해에 청화백자 사용금지령이 내려진다.³⁷ 그러나 청화백자는 이미 고가의 사치품으로 자리잡은 뒤였다. 결국 영조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청화백자를 비롯한 여러 기교품들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꾸준히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 사회분위기의 변화에는 사상의 변화가 그 기저에 있었다.³⁸ 조선의 사대부들은 계속된 燕行을 통해 청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상의 변화는 중국문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여 도자 양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2. 장식 자기 전성시대(정조: 1776-1800)

정조 연간에는 이전보다 장식적이고 화려한 도자기가⁸ 제작되었다. 경제적 번영 위에 상품생산이 보다 확대되었고, 지방시장의 발달로 보다 폭넓은 소비시장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청 문물의 유입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에 편승한 일부 계층의 사치풍조는 더욱 기세를 부리게 되었다.

1) 사회 분위기의 변화

정조 연간 들어 서울의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盆裁를 즐기거나 서책수장과 그림, 골동을 완상하고 차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는 도시민적 취미활동이 유행하게 되었다.³⁹ 이러한 취향 탓에 중국의 상회자기나 골동에 속하는 송대 哥窯 자기는 상당한 인기를 끌어서 이를 감상하고 나아가서 모방 제작하려는 경향도 생겨나게 되었다. 중국의 오채자기를 본뜬 질그릇이나 초별구이 편에 아교에 안료를 섞어 유사 상회자기를 만들기도 하였다.⁴⁰ 또한 연행사신들의 연행일기에는 중국의 도자와 골동 등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많은 물건들을 구입해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⁴¹

³⁷ 『英祖實錄』卷82, 英祖 30年 7月 甲午條.

³⁸ 당시 사상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일지사, 1995).

³⁹ 鄭雨峰, 「姜彝天의 漢京詞에 대하여」, 『韓國學報』75집(일지사, 1994), pp.43-45.



도 8 청화백자동채화조문호, 18세기 후반.
높이 23.9cm, 호암미술관

위와 같은 사회분위기의 변화는 도자 수요층의 확산을 동반하여 지방의 자기 생산과 유통에 활발한 기운이 일게 하였다. 순조 연간 徐有槩가 지은 『林園經濟志』에는 자기, 자기, 토기와 원료, 시장까지 적혀 있어 전국에 걸쳐 도자 유통이 원활했음을 짐작하게 한다.⁴²

한편 당시 지방 장인들은 집단 마을을 형성하여 작업한 것으로 여겨지며 세금 역시 마을 전체에 부과되었다.⁴³

2) 사변의 확대

영조 이래 사치품으로 규정된 고급 자기인 청화백자와 匣器는 崇儉之德의 정조에 의해 호된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청화백자에 대한 넘치는 수요를 억누르기는 불가능

했던 것 같다. 정조 18년(1794)의 기록을 보면 갑기와 畵器가 모두 사실상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그러나 다음 해인 정조 19년(1795) 기록에 따르면 여전히 기교제양의 갑기들이 제작되어 이를 정식으로 다시 금지하고 있었다.⁴⁵ 특히 왕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분원 경영에 깊이 관여했던 宗親 提調들이 앞장서서 이 시책을 어겼다. 또한 일부 관리들은 기교 자기의 제작과 갑변 시행의 재개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었다.⁴⁶

이들 갑변들은 대부분 사변과 연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사변의 질과 양은 수

40 李圭景, 『五洲書種』, 陶窯類 制陶窯上假彩法

41 李押, 『燕行記事』 聞見雜記(민족문화추진회,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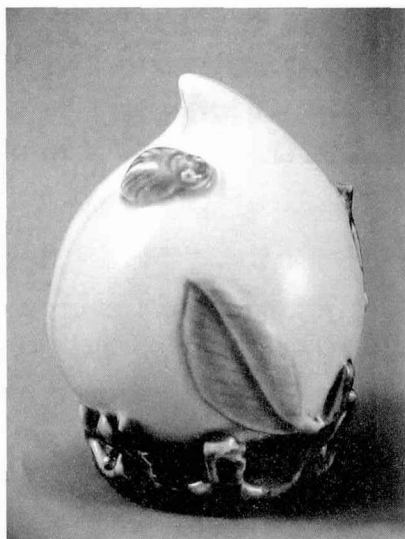
42 徐有槩, 『林園經濟志』 16 倪圭志 卷三, 貨殖 八城物山·八城場市(보경문화사, 1983).

43 『正祖實錄』 卷27, 13年 閏5月 丁未條.

44 『日省錄』, 正祖 18年 11月 16日條.

45 『日省錄』, 正祖 19年 8月 6日條.

46 『日省錄』, 正祖 19年 8月 1日條; 『正祖實錄』 卷43, 19年 8月 6日 甲申條.



도9 청화백자복숭아형연적, 18세기 후반, 높이 10.8cm, 호암미술관

요층의 확산에 힘입어 이전에 비해 향상,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변의 확대가 곧 장인들의 수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작업량의 증대는 장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기 양반수의 증가와 학예일치사상에 따라 문방구류의 급격한 수요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들 필통이나 연적도⁹ 같은 문방구류 역시 사변을 통해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식적으로는 투각이나 양각기법의 자기들이 유행하였는데 양각백자의 유행은 정조 말기 청화백자의 금지와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⁴⁷ 기명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져서 각종 크기의 사발, 대접을 비롯해서 접시, 종지 등이 盤床을 이루어 각 사에 진상되었다.⁴⁸ 이러한 반상

풍조는 경제적인 여유와 다양해진 식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다.

IV. 분원 민영화(순조-고종: 1800-1884)

19세기 들어 분원운영은 대량 別燔의 증가와 중간사취의 만연으로 혼탁해졌다. 정부 재정의 고갈로 분원 재정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결국 1884년 분원 운영은 민영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분원 장인들도 새로운 고용기회를 갖게 되었고 독자적인 생산과 유통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⁴⁷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古今窯窯辨證說.

⁴⁸ 『承政院日記』 1737冊, 正祖 18年 10月 8日條.



도 10
청화백자반상기,
19세기, 덕원미술관

1. 분원 운영의 악화(순조-철종: 1800-1863)

19세기 들어 조선백자는 음식기명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盤牀器^{도10} 같은 실용기명으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다.⁴⁹ 경제적인 여유로 식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상차림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많은 수의 그릇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식생활의 변화가 자기의 종류와 수요에 영향을 미친 좋은 예라 생각된다.

이 시기 궁중 사용의 자기는 분원에서 직접 조달했지만 각 아전이나 褒貶 시에 사용되는 자기는 사기전을 통해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담당한 것이 사기계 공인으로 그만큼 유통 규모도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이들은 각종 관청과 가례에 소용되는 사기를 납입하는 대신에 전국의 사기점에 대한 收稅權과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이전보다 유통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지만 이에 따른 受價의 부진으로 자연 질적인 면에서는 퇴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헌종 10년(1844) 가례 시에 소용되는

⁴⁹ 徐有榘, 『林園經濟志』, 瞻用志 卷2.

⁵⁰ 『純祖己丑進饌儀軌』(1829) 卷2, 器用: 『備邊司謄錄』 231冊, 憲宗 10年 2月 13日條.

자기가 만여 竹에 이를 만큼 엄청난 물량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십분의 일만 會減하되 사기전의 가격에 준하여 그 수를 계산해 주었다.⁵¹ 공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납품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진상품이 질 좋은 자기보다는 수량 위주의 粗惡品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순조 이후 분원 경영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은 전반적인 기강해이와 관리들의 부패 분위기에 편승한 각 사의 엄청난 과외침징이었다. 실제로 매년 분원자기 진상 시 각 사에 뇌물로 나누어주는 人情分給 자기는 정조 18년(1794)에 3,500개를 정식으로 하였지만 현종 11년(1845)에는 무려 28,300개로 증가하였다.⁵²

조정 각 사의 하인 등이 왕실의 진상어기를 함부로 침탈하는 수가 연례 진상되는 숫자를 훨씬 상회할 만큼 비대해진 것은 순조 이후 미약해진 왕권과 이에 따른 분원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상의 어려움은 이후 분원을 민영화하여 진상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로 해소되었다.

위와 같이 유통 규모가 커지고 사변의 양이 비대해진 반면 장인들의 생활은 그다지 윤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돌아갈 사변의 이익은 크지 않았고 흉년이라도 드는 경우는 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원이 선혜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⁵³

한편 백자에는 당시 사상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청 양식이 그대로 수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상형, 투각, 양각뿐 아니라 향로도¹¹나 병에 고리를 디는 중화풍의 기법이 유행하였다. 이 밖에 청의 코발트 단색유를 본뜬 청화채의 자기들이 다량 제작되었고 간혹 진사채를



도 11 청화백자십장생문향로, 19세기 후반, 높이 13cm, 고려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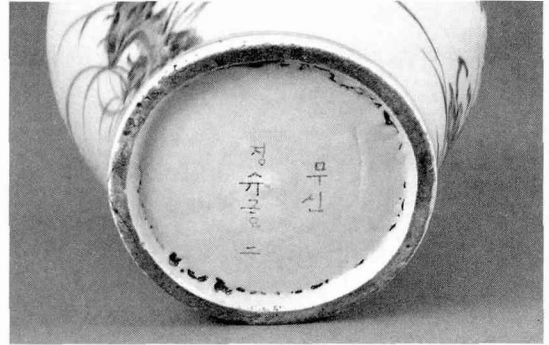
51 『備邊司謄錄』 231冊, 憲宗 10年 2月 13日條.

52 『承政院日記』 2443冊, 憲宗 11年 10月 20日條.

53 『備邊司謄錄』 221冊, 純祖 33年 3月 4日條.



도 12-1 청화백자 "무신 경슈궁 二"명 호,
1848, 높이 22.6cm, 호암미술관



도 12-2 12-1의 굽 명문

이용한 홍색유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청화채 자기들이 다량 제작된 배경에는 청화 사용이 전대에 비해 자유로워진 까닭도 있다.⁵⁴

다음 헌종(1834-1849) 이후에는 그릇의 바닥이나 측면에 한글로 수량과 최종 진상처, 시기 등이 釘刻된 그릇도 12-1, 2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한글 정각자기는 대부분 가례와 궁의 신축을 기념하는 연회에 주로 사용된 別燔의 고급품이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2. 분원 민영화(고종: 1863-1884)

고종 연간에 분원 민영화가 이루어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74년 공포된 『分院邊首復設節目』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절목을 보면 당시의 분원 운영이 사실상 몇몇 상인물

⁵⁴ 『純祖實錄』 卷7, 5年 2月 13日 丁卯條.

주와 기술자들에 좌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⁵ 당시 분원은 상인물주들이 스스로 변수가 되어 좋은 기술자와 원료를 빼돌리고 牟利에만 몰두하였다. 따라서 분원은 사실상 조정에서 요구하는 관요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조정에서 변수를 수차례에 걸쳐 혁파하였으나 사안을 감안하여 다시 설치한다는 것이 이 절목의 내용이다.

19세기 들어 각종 연례 시 소용되는 자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각 사에서는 분원 이외에 사기전을 통한 자기 무용을 시도하였고 그 양은 점차 확대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익이 수반되는 이러한 상품자기의 생산과 판매가 일부 상인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수익사업으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일부 기술자와 장인들이 동조하여 진상자기의 생산보다는 사변에 더 열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사의 課外侵蝕 같은 중간사취가 심하였고 진상을 담당한 사기계 공인 역시 엄청난 인정잡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관영수공업체제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어기번조를 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후 고종 20년(1883) 들어 왕실 재정의 축소와 합리적인 경비지출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減省廳에 의해 각 사 각 공물의 수가 진배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용원을 통한 진상도 예외가 아니었다.⁵⁶ 그 내용을 보면 점차 進拜物種을 줄이고 각 사의 분담을 보다 확실히 하는 등 이전의 폐단을 개혁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상에 관심을 촉구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⁵⁷

이런 가운데 갑신년인 1884년에 『分院磁器貢所節目』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 절목을 보면 이미 분원을 장악하고 있던 일부 상인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과외침징과 인정잡비의 증가로 어렵게 된 진상을 바로 잡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데 절목 발표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2명의 공인에게 자기 진상을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관영수공업에서 민간수공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⁵⁸

이 절목의 내용을 보면 사기제작에 소용되는 원료 및 연료의 수급과 제작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제작경비를 12명의 공인들에게 위임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기명의 가격을 元納價와 別燻價 등으로 나누어 진상가를 어느 정도는 현실화하였다. 또한 진상품을

55 『分院邊首復設節目』(규장각 古大 4256-10).

56 『備邊司謄錄』 264冊, 高宗 20年 正月 14日條.

57 『高宗實錄』 卷20, 20年 5月 28日條.

58 『分院磁器貢所節目』(1894, 규장각 古 4256-11).

제외한 私商賣買를 보다 자유롭게 하고 공인들의 생산참여도 인정하였다. 이처럼 진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것은 진상수량의 증대와 진상 시 과외침징 등으로 진상 자체가 어려워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분원이 민영화됨에 따라 분원에 소속된 장인들도 분원을 떠나 독립적인 가마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V. 맺음말

조선시대 신분 계급 가운데 하층이었던 사기 장인들은 이웃 일본 장인들처럼 작가로 이름을 남길 수도 없었고 중국의 장인들처럼 그릇의 판매로 막대한 상업적 이윤을 취할 수도 없었다. 국가의 부름에 따라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그들은 이름 모를 산자락에서 사발 한 점 굽는데도 열과 성을 다하였고 왕실과 이 나라 사대부들의 취향에 맞게 완벽의 백색미와 화려한 장식미가 아닌 소박하면서도 문기 있는 아름다움을 그릇에 표현하였다. 이들에게는 그릇의 상업성보다는 기능에 충실하면서 수요층의 심성에 맞는 그릇 제작이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시대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서 17세기에는 분원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분원고정론이 대두되었고 장인들의 부역제도 고용제로 바뀌었다. 분원운영 타개와 수요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장인들에게 사변이 허용되었다. 이 시기 장인들은 숭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들을 아끼고 격려했던 군주와 사대부들의 후원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다.

18세기 이후에는 대내외적인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선의 그릇에도 상업성과 장식성이 우선되게 되었다. 장인들도 사사로이 그릇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수익이 남는 그릇 생산을 위해 기술적인 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18세기 후반 들어 정기적인 그릇 매매를 위한 사기전과 청화백자 시문을 담당한 화공이 등장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변은 증가하였지만 이것이 장인들의 수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19세기 이후 사옹원의 경영은 왕실의 재정 악화와 관리들의 침탈로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런 틈을 타서 분원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것은 상인 세력이었고 장인들은 사실상 이들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수요층의 상실과 제작 의지의 변질, 이 두 가지는 조선장인, 특

히 분원 사기장들에게는 엄청난 좌절과 자기 혼돈으로 나타났다.

결국 1884년 분원의 운영을 12명의 공인에게 위탁하면서 분원은 민영화되기에 이르렀다. 관영 수공업 체제 하의 자기생산이 민간 수공업 체제로 바뀐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분원(Official Kiln), 백자(Porcelain), 분원 사기장(Public Potter), 상품자기(Trade Vessels), 조선(Chosun), 사번(Private Firing), 사응원(Palace Kitchen Management)

The Public Potter in the Late Chosun Period

Bang Byung-sun*

Without a doubt, the white porcelain of the Chosun period has long been viewed as one of the best representative art forms in terms of beauty and aesthetics of the Chosun literati. We feel the dignified beauty of that artistic era that the Chosun literati pursued through its characteristic shape and simple design.

This style of porcelain was produced by an official handcraft system throughout the entire Chosun dynasty. It began when an official kiln was established in *Sawongwon* (ie, "Palace Kitchen Management") during the 1460's. The production of ceramics was then supervised till 1884 by the royals who regarded the white porcelain as precious and important.

Selected from around the country, 380 public potters were charged with the production of royal ceramics in the official kiln. They made the official royal vessels, while other unselected potters made a living by crafting private wares in each hometown and paying cloth taxes as duties. Both artisan classes, royal and common, had to perform their duties as craftsmen for generations. They could not change their jobs legally.

Public potters were divided into several ranks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characteristics. The headmaster, called *Pyunsoo* (邊首), was selected from the potters to

* Professor, Korea University.

supervise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the royal vessels. But,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ome merchants became *Pyunsoo*. As a result, the *Pyunsoo* and potters made not only royal wares but also commercial ones. Unfortunately, there are scarce records about these individuals except for the name of some *Pyunsoo* from the late 19th century.

Chosun potters who were low in social rank could not leave their names like a Japanese craftsman neither do business well like a Chinese potter. Summoned by the country, they did their best yet suffered from severe hardships. They did their best when firing only one humble bowl on an unknown mountainside. They also tried to make simple and noble vessels exhibiting the spirit of royals and literatie. For them, it was more valuable and important than making just commercial skilled wares.

The details which were surveyed could be chronologically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17th century, the reform of the official kilns was accomplished in spite of successive invasions by Japan and Manchuria. Exclusive employment of potters and the permission of private firing of *Punwon* potters was executed. Potters overcame economic hardships owing to the patronage of royals and officers who encouraged and took care of them.

After the 18th century, commercial and decorative vessels became popular. Potters endeavored to improve their techniques for profitable manufacturing. Influenced by an economic boom, pottery shops also appeared. In addition, painting potters began to work at official kilns owing to the flourish of blue-and-white porcelain.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private firing increased as the consumers ceramics market expanded. But these expansions in private firing did not lead to an increase in potter' income. On the contrary,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work painfully burdened them more so than before.

In 19th century, the operation of *Punwon* became more difficult due to greater orders of extra fired ceramics and the wide-spread presence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The financial troubles of the government made the financing of the *Punwon* difficult as time went by. Eventually, *Punwon* became privatized in 1884. *Sawongwon* entrusted 12 dealers with the right of conducting tributes. So, the official handcraft system was finally changed to a civilian one.